



産學연계체제 구축...技術보급 힘쓸터

表面工學기술 발전추세에 학회명칭 바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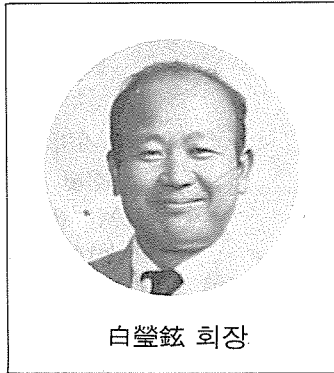
『최근들어 表面工學기술이 금속 뿐만 아니라 Cermics, Plastics 에도 적용되는등 다변화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학회명칭을 「韓國表面工學會」로 개칭했습니다.』

한국표면공학회 白瑩鉉 회장(고려대 공대교수)은 표면공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회원들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학회명칭을 「한국금속표면공학회」에서 「한국표면공학회」로 바꾸게 되었다고 소개한다.

『표면처리 기술은 단순히 부식방지를 위한 방식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방막자체의 기능보호라는 차원에서 표면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능성을 부여하는 표면처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白회장은 표면처리분야는 초기의 고가투자 등으로 인해 발전속도가 느리지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고 힘주어 말한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방식문제를 비롯 기능성피막, 페인팅, 세라믹코팅등 전문분야별로 전문



白瑩鉉 회장

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활동의 전문화를 꾀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白회장은 또 표면공학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학회운영상 어려움이 많지만 산업계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말한다.

이와함께 최신 정보교환 및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 선진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白회장은 또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표면처리포럼은 날로 발전하는 표면처리분야의 신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증진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

다면서 앞으로도 국제대회의 유치 및 참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회는 오는 10월에 Dry Process를 주제로 한 韓·日합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

『최근들어 국내 도금공업계가 설비, 기술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생산설비, 소규모 영세업체의 난립, 전문인력 및 고급표면처리기술의 부족등으로 취약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조합의 결성 △전문인력의 확보 △생산설비의 현대화 △연구개발비의 증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국제교류의 강화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白회장은 전체 공업기술의 基盤기술이며, 그 기술기반이 취약한 도금, 열처리, 금형, 鑄鍛造, 용접, 표면처리공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학회에서도 학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기초기반기술을 다지면서 첨단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仁>